

SKT, 안양시와 스마트시티 조성한다

5G 기반 모빌리티 분야 협력

SK텔레콤이 안양시민들에게 모빌리티 경험을 고도화한다.

SK텔레콤은 6일 안양시와 '시민중심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5G 기반 모빌리티 분야 협력 및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5G 자율주행 및 교통신호 연동 테스트베드 구축 ▲T맵 주차 - 안양시 공영주차장 정보 연동 ▲안양시 중소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이다.

안양시는 교통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주요 교차로 신호정보 수집 테스트 베드를 T맵 플랫폼에 연동한다. T맵 예측 시간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셈이다.

공용주차장 정보도 T맵 주차 앱에 실시간 업데이트한다. T맵 주차를 통해 구매와 실시간 과금 내역 확인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도 안양시에 고정밀지도와 5G



최대호 안양시장(왼쪽에서 네번째)과 SK텔레콤 유웅환 SV이노베이션센터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시민 중심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했다. /SK텔레콤

ADAS 등 기술을 통해 안양시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5G와 모빌리티 분야 중 소 벤처기업 발굴에도 협력키로 했다.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트루이노베이션 앤 셀러레이터'와 연계 운용 계획도 세웠다.

SK텔레콤 유웅환 SV 이노베이션 센터

장은 "이번 안양시와의 협력을 통해 5G 및 모빌리티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SK텔레콤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 파트너들과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기아자동차 車디자이너가 만든 예술작품 전시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가

기아자동차는 다음달 31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에서 열리는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기아차 디자인센터 디자이

너 110명이 직접 만든 공예, 회화, 조각, 설치미술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기아자동차는 '휴머니티'라는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에 맞춰 '환경과 경험에서

오는 역동성과 순수성'을 테마로 다양한 소재와 참신한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 80여 점과 미래 모빌리티 연구 모델을 선보였다.

기아차는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 '2019 기아 디자인 아트워크'라는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찾는 관람객들께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정연우 기자 ywj964@

오늘의 운세

9월 9일 (음 8월 11일)



36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다. 40년생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은 저라. 60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72년생 생각하지 못한 일로 심신이 고달프다. 84년생 기회가 주어져도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으니 결단이 필요.



37년생 나만 옳다고 우기면 사분오열(四分五裂)된다. 49년생 비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61년생 지나친 관심이 배우자를 지치게 한다. 73년생 뱀띠 원숭이띠와의 거래는 잘 살펴라. 85년생 삶의 질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으로.



38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50년생 고집을 피우면 가족도 외면. 62년생 물이 들어오니 열심히 노를 저어야. 74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극복해야 한다. 86년생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내 허물도 드러난다.



39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건강에 유의. 51년생 자존감은 당신을 지켜주는 힘. 63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특히 가족과의 대화에 주의. 75년생 필요 없는 사람만 주변에 가득. 87년생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



40년생 행복은 가정의 화목에서 시작. 52년생 새로운 인연으로 좋은 정보를 얻게 된다. 64년생 사업이든 직장이든 기쁜 소식이 있다. 76년생 자식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라. 88년생 불평보다는 고난을 감수하고 더 분발해야.



41년생 무리하게 느껴져도 나가야 한다. 53년생 창문을 열고 집안을 환기. 65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 일 수도 있다. 77년생 유쾌하고 통쾌한 일이 벌어진다. 89년생 어제 본 그 일이 계속 마음에 맴돈다.



42년생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54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 66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78년생 뿐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자. 90년생 우물가에 있으나 두레박이 없으니 진행에 대답하다.



43년생 마음이 편안하니 세상이 아름답다. 55년생 감정절제를 잘해야 일이 성사. 67년생 뒤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과 행동을 조심. 79년생 시랑타령보다 급한 일을 처리하라. 91년생 남의 이복에 신경 쓰지 말고 소신대로.



44년생 지치고 힘이 들면 가족을 생각하라. 56년생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건강을 살피자. 68년생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문서로 저장. 80년생 자신의 어려움을 노출하지 마라. 92년생 작은 것부터 차근히 신용을 쌓아 나가자.



45년생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포용. 57년생 목표를 세우고 혼신의 힘을 다하자. 69년생 귀인이 주변에 있으니 많은 도움을 받는다. 81년생 성공을 원하면 사람 사귐에 능해야 한다. 93년생 서남쪽으로 움직이면 행운이 있다.



46년생 돈 아까워말고 말고 내 몸을 아끼자. 58년생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어려운 일을 처리. 70년생 초조해 하지 말고 느긋하게. 82년생 모든 것을 혼자 떠맡으니 심신이 피곤. 94년생 처음 생각했던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47년생 근면검소하게 생활. 59년생 주변 사람들로 인해 재물을 얻게 되는 기회가 온다. 71년생 사소한 인연이라고 소홀히 하지마라. 83년생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망신실이 있다. 95년생 사람을 만나보면 만나는 곳에서 복이 온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텁텁!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7	2		4
3	6				1		
		2	5			6	
		3	4			9	
			3			1	
4				8		2	
2					5		
1				9		3	
6		4	7	2			8

7	9				3	5	
1			6				7
2		3	7			9	
		1					
6	5	4	9				
				9	3	7	
6	5	4	9				
		9					
9		1	3		2	8	4
8		5	2		6	7	3
1	4	3	9	6	5	2	8
6	7	9	8	2	1	3	5
1	5			4	6		

스도쿠 정답								
6	5	4	7	2	3	1	9	8
7	1	8	6	5	9	4	3	2
2	3	6	1	8	4	5	6	7
4	7	2	3	5	7	4	1	9
9	8	6	2	7	6	8	5	3
1	2	3	4	7	6	9	1	7
8	4	2	5	9	1	3	7	6
3	6	7	8	4	2	9	1	5
5	9	1	3	6	7	2	8	4
3	1	5	2	7	9	4	6	8
8	2	7	4	1	8	3	5	6
9	6	4	1	7	9	2	8	4
5	3	1	7	9	2	8	4	6
7	8	6	5	3	4	9	2	1
2	5	8	3	4	7	6	1	9
1	4	3	9	6	5	2	8	7
6	7	9	8	2	1	3	5	4

문제 제공= **날씨**

진짜 환경을 생각한다면



기자 수첩

김 유 진

(파이낸스&마켓부)

포장용 테이프 사용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침에 대해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굳이 종이상자 재활용까지 막을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사실 마트에서 쓰는 종이박스가 '새 것'이 아닌 '재활용'이기 때문이다. 종이 테이프를 사용해 분리수거를 용이하게 한다는 등의 기준 유통업계의 환경보호 아이디어를 활용하지 못한 점이 아쉽기도 하다.

정작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물류분야가 아닐까 싶다. 실제로 온라인으로 장을 볼 경우에 비닐과 종이박스가 더 많이 쓰인다. 혹여나 상품이 깨지거나 망가지진 않을까 모든 상품이 각 분야별로 포장이 되어서 배송되기 때문이다.

환경보호는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는 캠페인이다. 따라서 '너의 편의를 양보해라'를 강요하는 것 보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효율성을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과거 장바구니 사용을 격려하면서 소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시에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게끔 독려했던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시 한번 필요한 때다.

환경부는 종이상자가